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

류성일

오늘 우리 조국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년중시사상과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시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입니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혁명의 계승자들이다.

청년문제이자 혁명의 계승문제이며 조국의 미래와 혁명의 전도는 새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교양육성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청년들을 교양육성하는 사업은 혁명의 다음대를 키우는 사업이고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이며 이것은 혁명의 현세대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다른 사업에서는 오늘의 세대가 다하지 못한것이 있어도 후대들이 보충할수 있지만 후대를 키우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누가 보충할수도 없고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다.

청년중시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라는것은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우리 당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는것이다.

당의 전도와 혁명의 운명은 당의 후비대이며 혁명의 계승자들인 새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청년중시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믿음직하게 이어나갈 훌륭한 계승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로선이기때문이다.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은 새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가 준비시키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청년들은 오직 당의 령도밑에 혁명적교양과 조직생활, 실천활동을 통하여서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계승자들로 자라날수 있다.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자기 발전의 전기간에 청년운동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밑에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간 청년문제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전략적문제로 보시고 한평생 청년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의세계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는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청년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로 투쟁대오에 묶어세우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으시여 혁명의 화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었으며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부대로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의 품속에서 이 땅우에 청년중시의 위대한 경륜이 마련되게 되었다.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명칭과 친히 안겨주신 혁명의 화불봉 그리고 뜻깊게 제정된 청년절과 청년의 이름으로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충직하게 계승하시여 청년들을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우시고 우리 나라를 청년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청년동맹의 명칭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을 함께 모시여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하도록 하여주시고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고계신다.

청년중시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새세대들로 하여금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로선이기때문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장래운명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서의 청년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청년들의 역할이 높아져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청년들의 역할은 저절로 높아지지 않으며 혁명적당이 청년들의 훌륭한 기질과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것을 잘 키워주고 발휘하게 하는 정치를 실시할 때만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담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는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청년대오가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이끌어준 우리 당의 청년중시의 정치와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다.

전당이 일상적으로 청년교양에 힘을 넣고 청년동맹에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겨주면서 당의 청년전위로 내세워준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조국보위초소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피끓는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치였다.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 청년은 어느때나 있었고 이름을 날린 청년들도 있었지만 오늘의 시대처럼 모든 청년들이 당의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떨치는 보람찬 청춘의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한별만세를 부르던 김혁, 차광수세대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 조군실세대의 청년들은 공청과 민청의 영예를 떨치며 조국해방전과 조국방위전에서 불멸의 공적을 세웠다.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진 영웅전의 갈피마다에는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달려나간 천리마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조선에서 불굴의 기상을 높이 떨친 선군시대 청년들의 값높은 헌신의 자욱도 깃들어있다.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마련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세운 자랑찬 청춘대기념비들은 우리 당의 후비대, 계승자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대가 세대와 세대, 세기와 세기를 넘어 어떻게 굳건히 이어지고있는가를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의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에는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 슬기와 지혜가 깃들어있다. 청년들을 떠난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세상에는 아직도 력사의 변두리에 밀려나 사회의 우환거리로 버림받는 청년들이 적지 않지만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위력떨치고있다.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직력과 규률성이 강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영광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의 남다른 공지는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청년대군이 준비되어있는것이다. 이런 청년대군을 가지고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다.

청년강국은 본질에 있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의 청년대군을 가지고있으며 그의 선봉대적, 돌격대적역할에 의하여 나날이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강국이다.

선군조선은 말그대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청년대군의 힘에 떠받들려 비약하고 약동하는 청년강국이다.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증시사상과 청년증시정치를 높이 받들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품도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청년운동의 최전

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의 순결한 정신세계는 다름아닌 우리 당의 품속에서 형성되고 가꾸어진것이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청년들을 내 나라,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깨걸고 함께 나아갈 미더운 동지, 전우로 굳게 믿고계신다.

우리 당은 수백만 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세계를 압도할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있으며 당중앙이 작전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오늘 새시대의 역사적진군에서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인 청년들이 앞장에 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중시하는 조선혁명은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리하기마련이다.

우리는 청년운동을 강화하는것이 당을 강화하고 국가를 강화하는 최대의 중대사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전략적로선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키움으로써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